

믿음으로 항해하라! -3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믿음의 파장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똑같은 유다족속이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 한 번은 승리하고 한번은 실패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족속은 약속의 땅을 소유했고, 어떤 족속은 축복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반된 결과를 놓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시대의 문제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데 능히 이길 수 있는 잔잔한 바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벽찬 물결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는 평안할 때와 어려울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반응이 당면한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을 해 보셨죠?

물 위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 파장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것을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하지만, 믿음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인지요.

죄의 변식력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물학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것은 자라고 퍼져 나간다. 만약 교회 안에 죄가 일어날 경우, 그것은 한 사람의 죄로 그치는 법이 없다. 반드시 둑지를 찾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불평불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더 끌어 모으려 한다. 죄가 확장되는 것이다. 음란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혼자 음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죄에 동침하게 만든다. 이처럼 죄는 둑지를 규합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죄는 그 자체의 생물성 때문에 작은 죄에서 더 큰 죄로 새끼를 친다.

작은 욕심 하나로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자라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

자라고 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말씀을 통해 음욕을 품는 그 단계에서 좀 더 진행될 경우에 실제로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죄악부터 철저히 몰아내야 한다. 죄를 품어서 키우지 말아야 한다.

『하늘을 감동시킨 일천번제 예배자』 / 전병옥

우리 교회에 대안 유치원인 사무엘 학교가 있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전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앙교육과 영어교육 등을 비롯한 적어도 이 상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회에 조금 자랑을 하자면 교회에서 모든 건물 유지비를 대고, 또 더 좋은 시설과 교육을 위해 일정부문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모든 혜택을 아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관이지요.

그래서 입학 시즌이 되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만나의 교육시설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사무엘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봄날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삽을 들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기 화분에다 씨를 심고 짹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물을 주고 가꾸던 중, 어떤 나쁜 사람이 아이들의 화분을 다 엎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다시 화분을 만들어 놓으려고 삽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때가 지나고 화분에서 짹이 나오고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왜 제 화분에서 제가 심지 않은 꽃이 나오? 이상해요”

일인 즉, 선생님들이 화분을 갈아주다보니 거름이 있는 흙이 아까워서 그 흙을 모아다가 화분을 만들고 거기다 씨를 심었던 것인데, 그 흙속에 다른 씨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변화산의 주제가 “믿음으로 항해하라!”인데, 믿음이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환자들을 향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있지만, 전쟁의 결과가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들이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유다 족속이 바로 이 두 가지 결단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대한 확신 뿐 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식, 죄의 습관과 악을 지향하는 뒤틀린 영혼의 모습들을 버리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선포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항해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므로 그 산지의 주민을 쫓아 낸 성공적인 전쟁과, 철 병거를 가지고 있던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 말입니다.

그러면 산지의 주민을 쫓아 낼 수 있었던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이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인가요?

사사기 1장은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올라갔을 때 승승장구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올라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할 때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노력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보이지 않으므로 인해 노력해야 할 동력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아주 생각해 볼만한 실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후 1952년 7월 4일, 36세의 플로렌스는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도착지점인 해변가에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아갔지만 자기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보였던 도착지점이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5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실패 후에 그녀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분명한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 족속이 승리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사기 1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뿐아 엎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뿐아 엎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 할지 몰라도,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고,

또 그 약속을 함께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연합함이 아마도 시너지 효과를 주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미 나이 들어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을 영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자신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으며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영웅 갈렙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지만 또 다른 영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요.

정말 유다 족속이 보기에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기 어려워?”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떤 때는 이러한 경이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찬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나타나게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긍정적인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인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돋는 믿음의 손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돋는 사람들도 떨어져 버린 원수들 가운데서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여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나 이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익한 환경들이 끝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상황 가운데서. . .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의 족속들은 몰아낼 수 있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신앙적인 질문,

산지의 족속들을 몰아 낼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골짜기의 주민들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전쟁의 선봉에 섰던 것은 유다 지파였다는 사실, 산지에서나 골짜기에서나 늘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

문제의 핵심은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철 병거를 가진 주민들과 전쟁할 때는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번에는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족속이 철 병거를 가진 족속은 몰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참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철 병거를 보며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못하므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철 병거를 보는 순간, 이 무서운 무기를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미 이들에게서 믿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지점까지만 믿고 그 다음에는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 안에서만, 우리의 판단 안에서만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듣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그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까지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충만한 때에는 믿음도 있어 보이다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믿음도 없어집니다.

완전히 반대가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바닥날 때 믿음을 보여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인간의 죄의 속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에는 우리의 계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계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 섰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물이 온 땅을 덮었을 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항해 일지를 기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 싸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실패도 승리도 없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별적으로 믿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유다 족속이 산지 주민들은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철 병거들은 격파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산 특별기도회를 마치는 순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믿음이 변화산을 끝나고 나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분명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게으름이 불신앙인 이유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질 수도 없고, 전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대개가 두려움으로 인해 찾아옵니다.

“영적인 겁쟁이”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다음에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해!”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겁쟁이는 다음에 살려고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우기를 겁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느니라

절 병거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용기를 내라!

전진해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 당황하지 말라!